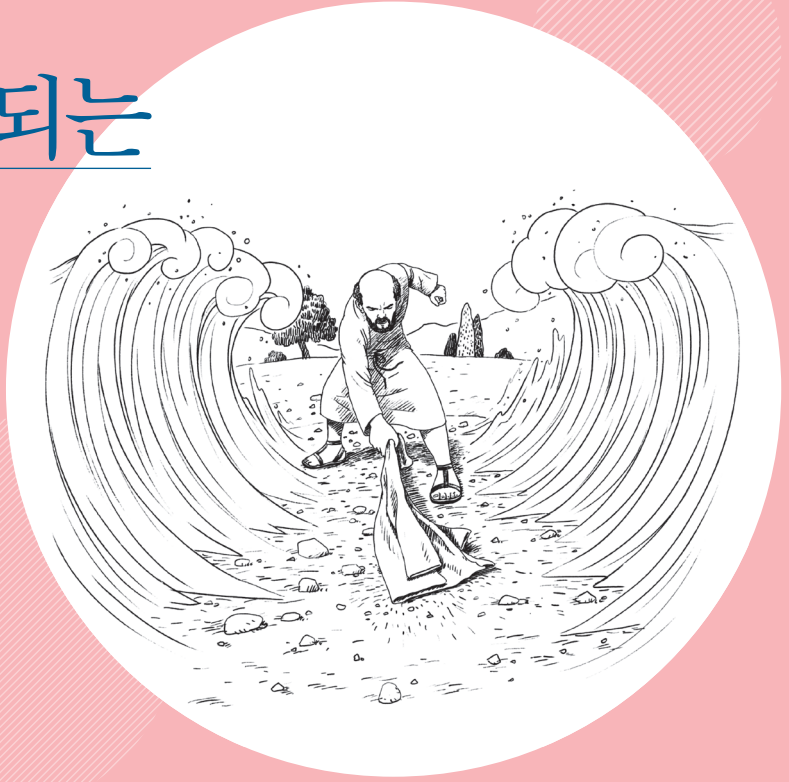


4과

계승되는 빛



• 배울 말씀

왕상 19:16-21, 왕하 2-3장

• 읽을 말씀

왕상 19:16-20

• 외울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 포인트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라!

•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
주셨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 할 때, 엘리사는 스승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엘리야가 받은 능력의 두 배를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다. 이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실제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살펴보면, 그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가며 떨어진 스승의 겂옷으로 요단 강을 쳐서 물을 갈라 건넜고, 여리고의 샘을 소금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할 때, 물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연합군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한 것처럼, 엘리사도 과부의 기름 그릇에서 기적적으로 많은 양의 기름이 나오게 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엘리사도 수벰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다. 그뿐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기도 했다. 또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 자신의 제자를 보내 아합 왕조를 끊어지게 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엘리야가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외쳤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죽을 때 북 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같은 고백을 듣는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믿음과 영성으로 북 왕국 이스라엘을 지킨 병거이며 마병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한 엘리사를 통해,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다.

4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나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교재 4과를 펴고 ‘이름’에 적어보세요. 다 적은 후에 나누어 보기로 해요. (한 사람씩 나눈 후 격려한다.) 어떤 친구는 문자 메시지로 좋은 소식을 알리고, 어떤 친구는 전화로 알리기도 하고, SNS로 알리기도 하며, 어떤 친구는 만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는 소식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알아볼게요.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하게 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벨므홀라에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겹옷을 벗어 발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이것은 자신의 뒤를 따를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떨어진 겹옷을 보고 엘리야를 따르고 섬겼어요.

하나님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더 보여주시기 위해 엘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 강에 도착했어요. 엘리야가 자신의 겹옷으로 요단 강을 쳐서 가른 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 위로 요단 강을 건너갔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의 두 배를 구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나타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도 떨어진 엘리야의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요단 강을 가르고 건너갔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 북 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어떤 사진인가요? (대답을 듣는다.)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는 모습이에요. 올림픽 성화는 그리스에서 시작해 올림픽 개최지까지 옮겨져 성화대에 불이 붙게 돼요.

불이 옮겨져 개최지까지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북 왕국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물이 좋지 않아 농작물이 죽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고쳤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계속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녔어요.

이때는 북 왕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북 왕국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어 패할 위기에 놓였어요.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북 왕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일로 북 왕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DEEP Q

1. 엘리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리고 성의 물을 고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2. 엘리사가 소원한 것은 무엇인가요? 엘리사는 왜 그것을 구했을까요?

엘리아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두 배나 있기를 구했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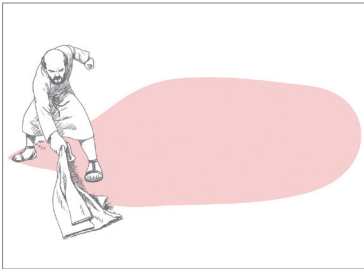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북 왕국 이스라엘에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야 해요.

저를 따라 해주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라!”



우리는 엘리사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
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
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볼게요. (한 사람
씩 나눈 후 격려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
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재 ‘걸음’의 빈칸에 적고 나누어볼게요.



우리가 빈칸에 적은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까요? 적
고 나누어볼게요. (한 사람씩 나눈 후 격려한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셔서 북 왕국 이
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셨
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드러냈듯이 우
리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해요. 우리는 그
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
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
람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주
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
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